

통일 칼럼

### 북한 '파병 기념관' 준공

러시아가 전쟁에서 쿠르스크 지역을 다시 확보한 게 1년 전이다. 파병 북한군도 여기에 참전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었다. 사망 북한군의 추모 시설인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이 최근 평양에서 준공됐다.

동맹을 넘어 혈맹임을 강조하는 북한과 러시아다. 각계각층의 북한 주민들이 모여든 이곳은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현장이다.

3층 규모의 기념관은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설이다. 야외에는 전사자들의 묘비와 이름을 새긴 석비가 조성되어 있고, 건물 안에는 병사들의 유품이 보관돼 있다.

행사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이들을 찾아 악수하고 안아주는 특별한 모습을 연출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이 참여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탈환이탈로 북러 양국의 우애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은 북한 파병군이 참전한 러시아 쿠르스크



정복규  
논설위원

크의 탈환 1주년에 맞춰 개최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기념관 건설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8월, 김정은 위원장은 참전 시 유가족들 앞에서 평양의 신도시 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깜짝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딸 주애와 함께 기념관 건설 현장을 찾아 삼포 흙을 뜨고 직접 지게차를 모는 모습도 공개했다.

준공식에서 김 위원장은 직접 유해에 흙을 얹고 유해 안치실에서 현화까지 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 같은 김정은 행보는 무엇보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다 진밀하고 강화된 지원을 요구하는 신호로

풀어준다.

북한은 지금 사면초기인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지금 미국 달러가 북한 돈 7만원까지 갔다. 1년 전에 2만5,000원 했다. 중국과의 관계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에서 북미 관계 해빙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라는 협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준공식의 의미는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러시아 측에서도 기념관 준공식 참석을 위해 대표단이 방북했다. 준공식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서한이 낭독됐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준공식에 앞서 김 위원장과 만나 군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이날 블로우소프 국방장관이 북러 5개년 군사협력 계획을 올해 안에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사실을 전했다.

러시아는 4년 이상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군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쟁에 필요한 드론 생산은 물론 전쟁 복구 인력까지 염두에 둔 이른바 '전략적 노동력 파병'을 북한에 요청할 거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두만강을 두고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교량이 착공 1년 만에 연결됐고, 원산에서는 북러 친선병원 건설도 첫 삽을 떴다.

하지만 북러 밀착 속에서도 북한이 러시아 측이 언급한 5개년 군사협력 계획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이 러시아 측 제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사설

####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 일부가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면서 주가조작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부 무죄로 봤던 원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7일 윤석열 취임 이전에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사별가방 역시 정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씨가 사별 가방을 받을 때 통일교 측의 묵시적 정타 의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802만원짜리 사별 가방은 사회통념상 단순히 의제적 선물로 보기엔 고가의 선물이라며 정타성이 없는 '인사차예'였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이후 김 씨가 받은 두 번째 사별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씨가 협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의혹, 그리고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취임 이전에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사별 가방 한 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 김영진 신간 '구름이 머물레라'

하해(夏海) 김영진 작가가 신간 '구름이 머물레라'를 펴냈다. 이번 수필집은 '담장에서', '바람이 부는 곳으로', '그리운 사람들', '구름이 머물레라', '시와 노래로' 등 5부로 구성됐다.

총 50편의 수필에는 유년의 기억이 잔잔하게 스며 있다. 책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따뜻한 기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어릴 적의 일이다. 밖에 나가 실컷 놀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나를 붙잡아 씻기 시킨다. 얼굴에 땀국물이 쪼르르 흐르고 땀내가 나는 나를 번쩍 안아 우물거에서 차디찬 샘물로 얼굴과 눈, 코, 볼을 뽀뽀뽀득 씻어 주었다."(어머니의 향기 중)

또 다른 글에서는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낸다. "나의 고향은 풍포 재석, 나를 태어나게 하고 어

린 시절 꿈을 키워준 곳. 나는 그곳에서 자라고 길러져 세상으로 나와 유영하고 있다. 영성한 거주 집에 살을 붙여 꿈을 키우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근본인 고향을 벗어날 수는 없다."(내 고향, 응포 중)

이처럼 김 작가의 수필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한 정겨운 정서를 품고 있다. 김영진 작가는 현재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이 여가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자유문학회, 민중시협회, 전북문인협회, 전북시인협회, 전북수필가협회, 표현문학회, 석정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미당문학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2011년 목포문학 시 부문 시인상을 비롯해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 독자제언

#### 교차로 우회전, "잠깐 일시정지"가 생명 지킨다

최근 교차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단순한 운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법규준수 사항 위반이다. 전방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5조에 따른 신호위반 또는 제27조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법규위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경우, "중요법규위반 12개항목"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순간의 방심과 습관적인 운전이 돌아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계도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활화된 안전운전 습관이 절실한 시점이다.

"일시정지, 잠깐 멈추는것" 작은 실천이 한사람의 생명을 지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짐을 명심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분을 지키는 성숙한 운전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이상우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손잡고 기념 촬영하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참가자들



지난 8일(현지 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48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 개막식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손을 잡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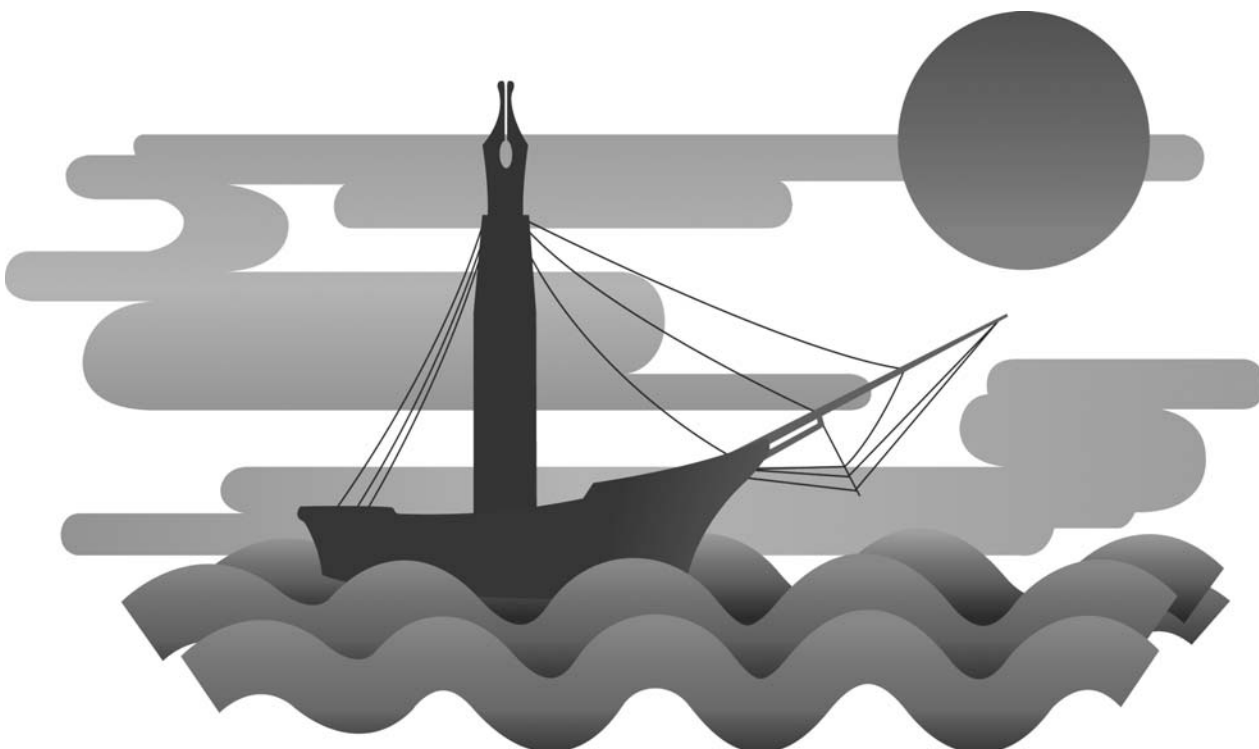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내·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